

중국 전승절 D-2... 달라진 한중 관계 주목

역대 최대 규모 열병식...차세대 미사일 등 공개로 군사력 과시
시 주석, 대일 비판 수위도 관심... 여군 의장대 등 볼거리 다양

앞으로 이를 뒤인 3일 오전 10시(현지시간·한국시간 오전 11시) 정각.

중국 수도 베이징(北京)의 한복판인 텐안먼(天安門) 광장에 중국 국기인 오성홍기가 올라가며 중국의 항일승리 및 세계 반(反)파시스트 전쟁 승리 70주년 기념식과 열병식(군사퍼레이드)이 막을 올린다.

귀진둥(郭金龍) 베이징시 서기의 개회 선포와 함께 시작되는 열병식은 중국의 56개 민족이 항일승전 70주년을 축하한다는 의미에서 56문의 대포가 70발의 예포를 발사한다.

중국 국가와 행진곡이 연주되며 분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호스트인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과 박근혜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외빈들이 텐안먼 성루에 모습을 드러낸다. 예상해 본 시진핑 체제의 최대 정치이벤트인 항일전쟁 승리 70주년 기념행사와 열병식 장면이다.

시 주석은 열병식 연설에서 이번 행사의 의미와 취지를 설명하면서 역사 바로 세우기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1만2000여명의 군 병력이 참가하는 최대규모의 열병식이 본격적으로 전개된다.

열병식 전 과정은 관영 중국중앙(CC) TV를 통해 생중계되고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로 전송된다. 텔레비전 편대가 항일전쟁 승리 70주년을 상징하는 70이란 숫자를 그리며 베이징 상공을 날아오르고 주력 전투기 쟈(殲)-10를 비롯한 첨단 전투기와 군용기 200대가 무지개색 연기를 뿜으며 베이징 하늘을 수놓는다.

텐안먼 성루와 텐안먼 광장 사이의 창안제(長安街)에는 중국군은 물론 러시아, 몽골 등 10여개국에서 파견한 보병부대가 절도 있는 행진을

선보이며 첨단 미사일을 실은 이동식 발사대와 전자, 장갑차 등 수백대도 뒤따른다.

항일전쟁에서 공을 세운 팔로군, 신사군, 동북항일연군, 화남유격대 등 10개 항일부대로 총 70개의 깃발을 선보인다. 또 2400여 명의 군악대가 '항일군정대학교' 등 항일전쟁 시기의 노래 30여 곡을 연주하며 분위기를 띄운다.

중국 군 통수권자인 시 주석은 열병대장의 안내를 받으며 중국산 최고급 승용차인 홍치(紅旗) '무개차'를 타고 시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열병식은 '진입', '행진', '열병', '분열', '해산' 등 5단계로 약 70분 정도가 소요될 예정이다.

이 장면은 중국중앙(CC)TV를 통해 생중계되는 가운데 전 세계의 이목과 관심이 집중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이 중에서도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 중 하나는 이번 행사를 통해 '군사굴기'를 노리는 중국이 어떤 신무기들을 선보이느냐는 것이다.

그중에서도 중국의 차세대 핵전략미사일로 꼽히는 ICBM인 '둥펑(東風·DF)-31B'와 차세대 ICBM 동펑-41 공개 여부에 세계의 이목이 쏠려 있다. 중국은 이번 열병식에 전략미사일 부대(제2포병)가 총 7종의 미사일을 100여기 이상 공개할 방침이어서 ICBM이 공개될 가능성은 매우 크다.

또 하나의 관심포인트는 시 주석 양옆에 누가 자리하느냐를 꼽을 수 있다. 지난 5월에 모스크바 열병식에 이어 중·러가 사실상 열병식을 공동 개최하는 만큼 한자리는 푸틴 대통령이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한 자리는 국내외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서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참가국 가운데 한국이 차지하는 위상이나 한중관계의 긴밀

함 등으로 볼 때 박 대통령이 최고 예우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도.

현재로서는 외교적으로 '오른쪽이 상석'이란 관행을 감안할 때 시 주석 오른쪽에 푸틴 대통령이 자리잡아 중리의 신밀월을 과시하고 시 주석 왼쪽에 박 대통령이 자리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된다면 1950년대 김일성 전 주석이 차지했던 중국 지도자의 옆자리를 60여 년이 지난 지금 한국 대통령이 차지하는 셈이 된다.

북한을 대표해 참석하는 최룡해 노동당 비서의 위치도 주목되는 포인트다. 중국이 최 비서를 각국 정상급 지도자 30명으로 분류해 '애우'는 하겠지만, 텐안먼 성루에 현지 대통령과 총리들이 상당수 참석한다는 점에서 자리배치가 뒤로 밀리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예상대로라면 '열병'이던 북한과 중국 관계가 소원해지고 한중 관계는 긴밀해진 '현주소'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될 가능성이 크다.

또다른 포인트는 시 주석이 과연 어느 수준의 대일 메시지를 전명할지를 꼽을 수 있다. 시 주석은 일제 군국주의의 침략으로 얼마나 많은 중국인이 희생됐는지를 부각하며 일본의 역사 부정과 군국주의 부활 동향을 비판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표현 수위가 어느 정도일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이번 열병식은 시진핑 체제 들어 변화하는 중국의 정치 지형도를 들여다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도 될 수 있다. 이미 원로들의 영향력과 발언권은 크게 위축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장쩌민(江澤民)·후진타오(胡錦濤) 전 주석, 리펑(李鵬) 전 총리 등 원로들의 참석 여부가 관심거리다.

이밖에도 이번 열병식은 중국 최초로 여군 의장대와 여군 군악대가 등장하고 장성들로 구성된 장군부대로 참가하는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 열병식 공개 공군 주력기

진략폭격기 홍(轟)-6K(H-6K)



스텔스기 쟈(殲)-20(J-20)



수출용 스텔스기 쟈(殲)-31(J-31)



함도 라오닝 함재기 쟈(殲)-15(J-15)



조기경보기 공정(空警)-2000



평균 연령 20세·키 178cm 미녀 여군 의장대 '눈길'

모델 출신 먼저후이 등 인기 끌어

오는 3일 중국 항일전쟁 승리 70주년 기념 열병식을 앞두고 모델 출신의 여군 의장대원 먼저후이(門家慧·23·사진)가 '열병식 스타'로 떠올랐다.

올해 열병식에 처음 참가하는 중국 여군 의장대 중에서도 먼저후이는 슈퍼모델 선발대회 수상 경력의 유명 모델이라는 점에서 인터넷포털과 소셜미디어에서 집중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고 영문일간 차이나데일리가 지난 31일 전했다.

라오닝(遼寧)성 다롄(大連) 출신의 먼저후이는 10대 시절부터 지방에서 모델로 활동하다 2010년

중국 중앙방송(CCTV)이 주관한 슈퍼모델대회에서 10대 모델상을 받았던 인물. 주로 모터쇼 모델로 참가하면서 중국 내에서 유명해졌다.

지난해 7월 베이징 패션화원을 졸업한 뒤 의장대의 꿈을 안고 군에 입대했다. 먼저후이가 전승절 열병식에 참가할 여군 의장대원으로 선발됐다는 소식에 그의 개인 웨이보(微博·중국판 트위터)에 올라온 사진들이 여기저기 옮겨지며 관심을 받고 있다.

하지만 열병식에 대한 대내외의 관심을 고조시키기 위해 여군 의장대 참가에 이어 모델 출신 여군을 부각시키는 모습에 감지 않은 시선도 나온다. 먼저후이가 총 51명의 여군 의장대는 17명

씩으로 나눠 육해공 남녀 혼성 의장대 방진(네모꼴 형태의 진형)에 들어가 3일 열병식에 처음으로 참가하게 된다. 여군 의장대원은 평균 연령 20세에 신장이 178cm에 이르며 88%가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갖췄다. 먼저후이도 키가 179cm에 이른다.

하지만 남녀가 혼성으로 열병식에 참가하는 까닭에 '각이 살아있는' 행진을 위해 남성들보다 신장이 평균 10cm 작은 여군 의장대원은 체격과 보폭의 열세를 극복하는 지열한 훈련을 거듭해왔다. 0.75m로 정해진 일정한 보폭을 맞추기 위해 여군 의장대원은 팔 움직임이 더 크게 하는 대신 남성 의장대원은 약간 좁히는 훈련을 계속해왔다고 한제(韓捷) 의장대 대장이 전했다.



펜션·전원주택단지

캠핑장·미술관·체험학교·식당
아외결혼식장·연수원·요양원·찻집

관광특구! 투자가치 확신!

주인직매 H. 010-3605-5000

- 전남 담양군 금성면 대성리 879-4번지 외 1필지(구, 송학랜드)
- 토 9168평, 건 882평, 계획관리지역, 제2종 지구단위 계획구역
- 담양댐 하류 바로 옆, 담양리조트, 금성펜션단지 1분거리
- 죽녹원/금성산성/추월산/강천산/대나무 박물관/메타세쿼이아길 근접
- 과거 박물관, 펜션, 식당, 찻집으로 운영함
- 차후 형질변경 가능
도 관광자금 유치 가능
- 관광특구로 모든 업종 개발 가능
귀농/귀촌 전남지역 1순위 지역
- 감정가 - 28억 / 시세 30억 정도
- 매매 22억(법인체 인수 가능, 이전비 없음)

현, 12억 5천만원 대출 있음(연 2.1%)
1년후 20억이상 대출 가능

- 금호동 서광병원 맞은편 사거리 코너
- 7층중 7층 120평, 구 빅스 Bar 자리
레스토랑/노래홀등 모든업종 오픈 가능
- 매매 - 5억 6천만원(대출 3억 6천만원 포함)
- 임대 - 보 1억에 월 300만원 가능

대단위APT 밀집지역 근린상가

4면유리, 전망좋은

주인직매 H. 010-3605-5000